

2008년 자동차산업 전망



1 총괄

08년 자동차생산은 내수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확대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42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판매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지만 경기회복세, 소비자기대지수 상승세, 신차출시 확대, 차량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 등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원화가치 상승세, 미국·유럽시장 부진, 해외생산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품질개선 및 브랜드가치 상승, 신차투입 확대, 신흥시장으로의 시장다변화, 업계의 해외 판매망 활용 등으로 전년대비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차 판매는 소형차 등 다양한 모델 출시, 기존브랜드의 가격 인하, 전시장 및 A/S 센터 확충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라 22.6% 증가할 전망이다.

〈08년 자동차산업 전망〉

(천대, 십억불, %)

구분	06년		07년 (추정)		08년 (전망)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생 산	3,840	3.8	4,060	5.7	4,200	3.4
내 수	1,164	1.9	1,220	4.8	1,300	6.6
수 출	2,648	2.4	2,840	7.2	2,900	2.1
(수출액)	(43.2)	13.8	(49.7)	15.0	(54.2)	9.1
수 입	42	35.4	53	27.4	65	22.6

2 내수

08년 자동차내수는 고유가 지속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지만 경기 회복세, 신차출시 확대,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130만대가 예상되고 있다. 민간소비,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08년도 경기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기대지수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자동차 수요

측면에서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잠재 대체수요가 커지고 있고 신차도 전년보다 많은 10개 모델의 출시가 계획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신차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제유가 불안정, 7~10인승 RV 자동차세 인상,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장착의무화 및 배기가스규제 강화에 따른 가격인상 등이 내수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는 6.8% 증가한 105만 3천대, 상용차는 5.5% 증가한 24만 7천대로 상대적으로 승용차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승용차는 노후 차량 누적으로 잠재된 대체수요 증가와 10개 차종의 신차출시로 인한 신차효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05만 3천대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상용차의 경

우는 2기 신도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대형트럭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생계형자영업자, 소규모서비스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마스, 라보 등 경상용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재생산하는 등 5.5% 증가한 24만 7천대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트럭 및 버스의 배기가스규제강화에 따른 유로IV 적용과 소형트럭과 15인승 이하 버스의 경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IBD) 장착의무화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급등이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국내경제를 위축시킨다면 국내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자동차 차종별 내수 전망>

(천대, %)

구분	06년		07년(추정)		08년(전망)		증가율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총계	1,164	100.0	1,220	100.0	1,300	100.0	4.8	6.6
승용차	936	80.4	986	80.8	1,053	81.0	5.4	6.8
상용차	229	19.6	234	19.2	247	19.0	2.5	5.4
- 버스	74	6.4	71	5.8	74	5.7	-3.9	4.1
- 트럭	154	13.3	163	13.4	173	13.3	5.5	6.1
(1톤트럭)	105	9.1	110	9.0	117	9.0	4.0	6.2

승용차 내수시장은 SUV와 경차, 대형승용은 호조가 예상되지만 중형 및 소형차, CDV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차는 고유가로 경제성이 부각되고 경차규격 확대에 따른 특소세 면제효과와 모델경쟁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한 9만 2천대가 예상된다. 수입차 내수판매는 02년에 1만대를 넘어섰으며, 04년 2만대, 05년 3만대, 06년 4만대, 07년에는 5만대를 넘어 매년 연간 1만대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차 국내 판매 전망>

(천대, %)

구분	06년	07년(추정)	08년(전망)	증가율	
				07/06	08/07
수입차	42	53	65	27.4	22.6

08년에는 소형차 등 다양한 모델 출시, 기존브랜드의 가격인하, 수입딜러들의 전시장 및 A/S센터 확대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라 전년대비 22.6% 증가한 6만 5천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차의 시장잠식 속도

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3,000cc이상 고급차뿐만 아니라 대중차에서도 상당부분 시장잠식이 예상된다.

〈지역별 자동차 수출전망〉

(천대, %)

구분	06년		07년 (추정)		08년 (전망)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07/06	08/07
총 계	2,648	100.0	2,840	100.0	2,900	100.0	7.2	2.1
북미	851	32.2	846	29.8	850	29.3	-0.6	0.4
- 미국	693	26.2	676	23.8	479	23.4	-2.5	0.4
서유럽	688	26.0	551	19.4	528	18.2	-20.0	-4.2
동유럽	298	11.3	435	15.3	473	16.3	45.6	8.8
중남미	209	7.9	301	10.6	319	11.0	44.3	6.0
중동	272	10.3	318	11.2	328	11.3	17.1	3.0
아프리카	145	5.5	179	6.3	186	6.4	23.6	3.7
태평양	102	3.9	122	4.3	128	4.4	19.5	4.5
아시아	83	3.1	88	3.1	90	3.1	6.2	2.1

3 수출

08년 자동차수출은 신흥시장으로의 시장다변화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29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수출 여건은 미국 및 서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기둔화로 자동차수요가 정체 내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원화절상 추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해외공장 생산확대로 수출이 일부 대체되는 등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동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등 신흥국시장의 자동차수요 확대로 세계 자동차수요가 3.6% 증가가 예상되며,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 상승,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의 소비자만족도 개선, 수출전략차종 투입 확대와 GM 및 르노·닛산의 해외판매망 활용, BRICs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의 시장다변화 등으로 국산

차 수출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액으로 보면, RV와 중대형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과 부품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1% 증가한 542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국산차의 평균수출가격은 05년 10,411불에서 07년 11,800불로 높아졌으며, 08년에는 12,000불로 높아져 완성차 수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394억불이 예상되며, 부품수출액은 KD(Knock Down) 수출과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19.4% 증가한 148억불이 전망된다.

지역별 수출 전망을 보면, 대북미 수출은 미국시장의 정체에다가 원화강세로 인한 국산차의 가격경쟁력 약화, 현대 앨라배마공장 생산 확대 등으로 84만대로 정체될 전망이다. 서유럽 수출은 서유럽 시장수요 감

소, 기아의 동유럽 현지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GM대우의 GM 판매망 활용, 유로화 강세, 현대 i30 본격 판매로 전년대비 4.2% 감소한 52만 8천대(수출비중 18.2%)로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수출은 고유가 지속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중심으로 8.8% 증가한 47만 3천개가 예상되며, 대중동 수출은 사우디,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3.0% 증가한 32만 8천대가 예상되며, 대중남미 수출은 칠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브라질 등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여 31만 9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은 올림픽 특수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를 중심으로, 태평양지역은 호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중심으로 각각 2.1%, 4.5% 증가한 9만대와 12만 8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KD(Knock Down) 수출

08년 KD수출은 중국, 우즈베크,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전년대비 17.2% 증가한 150만대가 예상된다. 최대 KD수출대상국인 중국은 올림픽 특수도 있어 자동차 판매가 12.0% 증가한 996만대로 예상되어 KD물량의 급증세가 예상되며, 우즈베크, 폴란드,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을 중심으로 전년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 KD수출은 17.2% 증가한 15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금액으로는 07년보다 8억불 증가한 52억불로 18.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KD 수출 전망〉

(천대, 십억불, %)

구 분	06년	07년 (추정)	08년 (전망)	증가율	
				07/06	08/07
수출량	1,067	1,280	1,500	20.0	17.2
수출액	3.8	4.4	5.2	15.5	18.2

5 해외 생산

08년 자동차 해외생산은 기존공장(미국, 슬로바키아, 중국 2개 거점, 인도, 터키)이 본격 가동하고 현대, 기아의 중국 제2공장과 인도 공장이 추가로 가동에 들어가 전년대비 39.1% 증가한 160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자동차업체의 해외생산 전망〉

(천대, %)

구 분	06년	07년 (추정)	08년 (전망)	증가율	
				07/06	08/07
생산량	965	1,150	1,600	19.2	39.1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